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여라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성직에로의 부르심

(말라기 2:1-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보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 율법을 구하는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은 거룩한 일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반드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모든 사역자들, 혹은 교역자를 의미합니다.

성직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러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그 생활이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경건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5절).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레위 족속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영어로 ‘reverence’라고 하는데 존경할만한, 하나님을 높이는, 두려워함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시 111:10).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요 단지 앉아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 경건한 삶을 사는 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6절).

하나님의 일꾼은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화평과 정직,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5:9).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구제나 선행 외에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제나 선행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일이 되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에 대한 상급은 그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이방에 빛이 되게

3.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6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헌신해야 합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에 있는 진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 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됨이 없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말씀의 지도를 받는 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7절)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한 지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본문에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preserve’,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보존해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목마른 사람이 왔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보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추석 연휴 동안 주님을 슬프게 말자

- 성수주일(聖守主日) -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가 이 땅에 퍼져간다. 우리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일이 있어 온 교회 성도들은 성수주일(聖守主日)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런 예배가 있도록 하자.

2008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계속 접수 중

성도 한 명이 한 과목이상 수강토록

지난 주일부터 2008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일제히 개강을 하였다. 우리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이 한자리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도 들으며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열린 프로그램은 매학기 성도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강의를 계속하여 성숙된 전국시민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의 시간을 조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여가활용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동참하기 바란다.



아가페타운 용도변경 허가 득하다

9월 1일(월) 가평군청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가페타운' 용도변경허가가 드디어 지난 8일(월) 가평군청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공사에도 함께 하여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

무지개어린이합창단 2기 단원 선발

9월 19일(금) 오후 5시 - 501호

서울교회부설 한국 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 무지개 어린이합창단(단장 : 오정수 장로 / 음악감독: 이영조 집사)은 지난 4월에 이어 제2기 신입단원을 선발한다. 이번 2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신입단원을 선발한다. 많은 서울교회 어린이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단원이 되면 음악의 기초교육은 물론 성악 훈련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된다. 연습은 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

시간이다. 선발은 9월 19일(금) 오후 5시 501호에서 ① 동요나 어린이 찬송가 중 1곡 가창, ② 음악소양평가(단순한 악보보고 계명창 하기, 듣고 따라 하기 등)를 통해 전형 을 할 예정이다. 원서배부 및 접수는 교회 1층 사무국에서 한다.

순례자 각 부서 촉탁기자 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17년전 우리 서울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때를 같이하여 「순례자」를 창간토록 하시어 어언 제 869호를 내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순례자」 발전을 위하여 교회 각

부서와 기관에 촉탁기자를 임명함으로써 유기적인 역동성을 제고하고, 몸 된 교회의 공보지로서 그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 자기 부서 활동을 알리는 일에 촉탁 기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부서	기자 성명	부서	기자 성명	부서	기자 성명
영아부	최은실	디아스포라부	박우주	전도위원회	원용규
유아부	이혜선	사랑부	이조은	선교위원회	송인권
유치부	오주명	에버다부	박은영	제1스데반회	서춘식
유년부	이화용	새가족부	은기장	제2스데반회	최양진
초등부	박민숙	소요리문답부	김광욱	제1권사회	전정숙
중등부	한상욱	장년부	이동권	제2권사회	채경희
고등부	한상혁	신앙강좌1부	이양철	비전2020	최임수
대학부	김필구 · 김성국	신앙강좌2부	이태주	멀티미디어단	정치은
청년1부	황성일 · 신혜영	영어예배부	김원웅	호산나역교	홍 석
청년2부	조민희	예배/찬양위원회	최형열		
신혼가정부	김민철	교구위원회	한상준		
				총 31개 부서	총 33명

다락방 개강

9월 10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다락방장 성경공부

한여름 무더위 기간에 잠시 방학을 하였던 다락방 모임이 9월 12일(금) 개학한다. 다락방장 성경공부는 9월 10일(수) 1,2부 수요일예배 후 모인다. 각 교구간사들과 다락방장은 다락방 개강에 앞서 교구와 다락방을 점검하여 은혜로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제34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8일(월)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

9월8일(월)부터 3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현대사회와 복지목회'를 주제로 개강한다.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종운 목사의 '마태복음연구'가 계속되며 2교시는 주제별로 10명의 복지관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강남노회 전도 특별세미나

9일(화) 오전 10시 웨스트민스터홀

서울강남노회 전도특별세미나가 9일(화) 오전 10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림형석, 신정, 홍순화 목사 등 3명의 강사가 선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9월 성경통독 시상

21일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2월 17일 성경일천독대장정을 마감한 이후에 새롭게 성경통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을 9월 21일 주일찬양예배 시에 갖게 된다. 통독을 마친 분들과 필사자들은 성경통독카드를 기록하여 교구목사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교인 정보 변동 사항

빨리 연락주세요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교회에서 교적부에 있는 교인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면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 성도 여러분은 바뀌는 새 전화번호 등 본인의 기본 정보 변동사항을 교구담당 목사나 사무국에 지체없이 연락하여 각종 전화 메시지나 우편물 전달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

2008 열린 바자 스케치

이웃을 사랑하며 장애인들과 어려운 노인들의 삶을 생각하는 이 가을...

높아지는 푸르른 하늘 그릇에 우리들의 사랑을 가을별에 듬뿍 적시고 바람으로 간을 맞춰 뜨거운 열정으로 보글보글 끓이며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바자가 무르익어 갑니다.



창립이후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 또는 선교를 위한 바자였지만 올해는 이웃사랑과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한 바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1교구부터 14교구까지, 보이지 않는 지하주차장까지 모두의 땀방울은 사랑의 덩어리로 아가페타운의 사랑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린 장터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찾아오시는 이종윤 목사님께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와 단합으로 성공적인 바자가 되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교회 옆에서 수고하시는 1교구, 8층 만나홀에서 각종 메뉴로 오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며, 13교구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 최지욱과 함께 한 카페가 서울교회 북카페의 원년이 되고, 교회 전체에 풍기는 커피의 향은 하나님이 주신 예술이었습니다. 김치를 다져넣고 시원하게 한 묵밥도 최고!

12교구의 매콤한 떡볶이와 순대를 곁들여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 현웃 패션으로 기업화한다면서요.

깊은 산속 솔밭으로 오세요. 솔잎발효액 출시!

일주일 전부터 김치를 담아 빈대떡 준비

비에 부산을 댄 10교구, 부치는 냄새로 시장기를 돋우게 하여 수입이 짹짹... 바삭바삭 튀김으로 입안에 군침을 돌게 한 2교구, 여름끝자락에 한 몫 툭툭히 잡은 14교구 얼음 빙수, 6교구 해물파전 맛은 바닷가를 끌고 온 맛, 11교구 동그랑땡, 잡채, 모든 음식의 깊은 맛은 뒷자리 사라권사님들의 손맛!

3교구 액서서리 · 생과일주스 · 왕만두는 현대인

이 좋아하는 멋내기 상품, 웰빙음식입니다. 에바다부는 올해도 호떡집에 불났다면서요. 눈물겨운 헌신으로 성도님들의 가슴을 울린 호산나 대안학교, 모퉁이에서 정성을 모은 사랑부.



매는 수준 높은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바자위원회에서 선심 쓰고 주신 강남노회 코너는 4교구에서 도와주시고 감사 감사로 천국까지 소문이 났답니다. 4교구 의류도 더불어 대박이네요!

지금까지 먹거리, 멋내기 등으로 잔치집이었지만 오후 2시부터는 목사님 저서 사인회가 열리는 시간이어서 들쭉 거리던 장터가 잠시 조용한 시간으로 진행되었고 사인하실 때 개인 개인 말씀까지 주셔서 진



2008 열린 바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디아스포라부 북한산 장뇌삼 · 오가피로 복음화된 통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7교구의 봉평 신도불이 메밀전은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반짝 반짝 보석네타이로 가을 멋쟁이를 만든 8교구, 대형매장을 방불케 하는 9교구 LG 전자 - 대폭세일로 지역 주민에게 준 큰 혜택은 바자의 꽃이라고 할까요? 스프리스운동화는 교구를 초월하는 유명 품목이 되었답니다. 대치동 학생들이 이날만 기다린대요. 우리교회에서 최초로 시작된 경

정 영의 시간까지 구색이 된 큰 잔치 마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얼마나 사랑이 전하여졌는지 아가페 타운의 노인과 장애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자후기의 기도제목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품어봅니다.

폐회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내가 모든 사도 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라는 말씀으로 2008 열린 바자의 막이 내렸습니다.

글 : 신동기 / 사진 : 정동호 (편집국)

치료하시는 하나님 - 간증

암(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인동렬 성도 (1교구)

집사님은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금년 1월 중순경 병원 검사에서 암을 발견하고 바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 교회에 나가는 형제, 친지들이 기도는 물론 목회자님까지 모시고 심방을 해주셨습니다. 불신자였던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교회는 처음이고 무지한 상태여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 선택을 하기로 생각하던 중 박길희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넉넉하게 이해가 되었고 바로 받아들여졌으며 웬일인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새벽기도 뿐 아니라 수요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세례반에서 교육 중입니다.

우리 부부는 환우들을 위한 금요기도 모임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

과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생활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그 순간만은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며 주님께서 언젠가는 저에게도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3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C.T. 검사결과 놀랍게도 전이된 부위가 거의 사라지고 잘 치료되어 가고 있었으며 6차 치료 후에는 전이된 부분은 완전 치료되어 흔적이 없어졌고, 치료 전 4cm 이었던 암세포가 0.8cm으로 줄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은 만큼 응답하시고 드린 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맥추감사절과 아가페타운 건립 헌금을 적은 액수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더니 다음 날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드린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의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매사 긍정적이며 자기 병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치료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 제게는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합창으로 준비된다. 모차르트의 '존귀하신 구주' 외에 두 곡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는 가장 크고 힘찬 소리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주일 2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오르간에 김윤지, 피아노에 김현주 선생이 수고한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자녀 삼기위해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부부는 앞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박준호 고별 오르간 독주회

11일 (목) 저녁 7시30분 본당에서

1부 예배 반주자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선생이 독일로 유학하기 위해 다음 주일을 끝으로 떠나게 되어 고별오르간 연주를 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일(월) 한국 로잔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11일(목) 미래연구원 제1회 콜로кви움에서 주제 발제를 한다.
- 피선 : 2교구 이동만집사 전국양복협회 부회장
- 특남 : 1교구 양일형, 이혜림 성도(이원규, 장항자 집사 장녀 가정)
- 특녀 : 3교구 장경원, 오숙영 집사 가정
- 출국 : 이대중 집사(7교구) 주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문화 홍보(9/4 출국)
- 전화번호 변경: 이영기 장로 010-4601-7208
- 주간식당 봉사: 제2권사회(9.14) 빌립선교회 (9.21)
- 금주의 식사 : 우종암 성도(우승희 성도) 가정
-아내(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천국시민양성

목회자신학세미나 시작합니다

최광성집사 (12교구)

서울교회가 세움을 입으면서 더불어 같이 시작된 목회자신학세미나 34학기를 맞아하면서 9월8일(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이 민족 앞에 임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민족복음화에 앞장서 왔으며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증거하여 달려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사역에 피곤도 하시려면 월요일이면 전



국 이곳저곳에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쁜 걸음을 서울교회로 향하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을 빌 적마다 봉

사자로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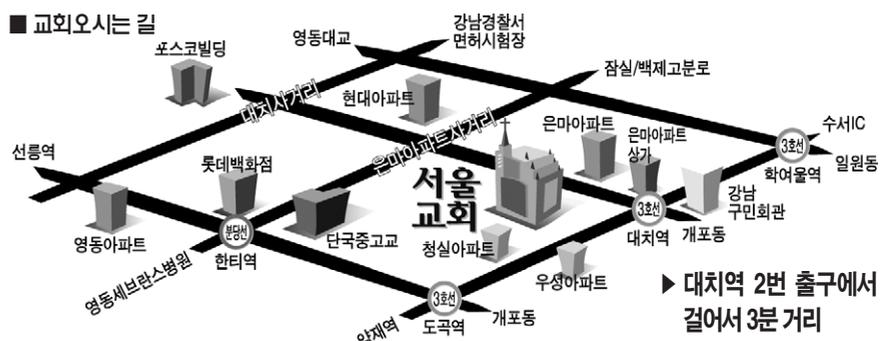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연구하시며 가르치시는 이종윤 목사님과 둘째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들의 열심을 보며 서울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됨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가을학기 34학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의 잔치가 서울교회를 통하여 전국으로 메아리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2.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 개강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3. 아가페타운 건립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